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아동부 수련회가 25일부터 27일까지 천안 단비교회에서 열립니다.
생협에서 옥수수(홍천 동면교회 재배)를 판매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시다.

창 28:10~19 / 시 139:1~12 롬 8:12~25 / 마 13:24~30	미정

오늘 식당 봉사 : 정영선 홍춘숙 김희우 김현주 김경혜 최숙화 김세진
다음 주 식당봉사 : 이영란 이현순 이소애 이소혜 이승진 이소순 강세기
오늘설거지봉사 : 7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청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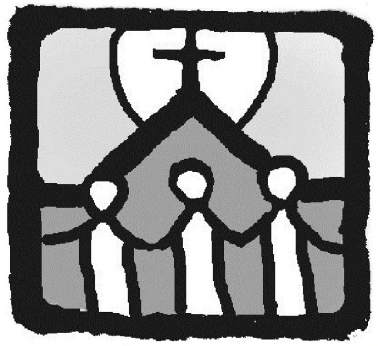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106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9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 되시며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끝없이 반복되는 전쟁과 사고로 이 땅 곳곳에 비명과 절규가 가득합니다. 오, 주여 어찌합니까. 우리에게는 그 무엇 하나 막을 힘이 없습니다. 무고한 희생은 계속되건만 그 피눈물에 응답하려는 우리의 몸부림은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큰 팔을 드셔서 약한 이들을 품어주시고, 악한 이들을 막아주십시오. 전쟁 없는 평화의 세상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아픔과 상처의 땅에서 주님의 평화를 일구어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며 우는 자와 함께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어여삐 여겨 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새로운 힘이 샘솟듯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김금순 김문주 김신실 김윤수 박상호 김정민 이혜령 김지호 전혜리 김현주 박윤숙 성지현 송동준 김진경 오상희 원인해 윤미경 이광섭 이부곤 이순용 이용현 이주영 오재영 임호성 정명희 정선희 정영례 정한구 왕영순 정현모 권정연 조관행 홍선희 조병무 송양진 조순덕 최은미 한규숙

감사헌금

김명하 김진중 김태정 박미연 신민철 안정자 유아부 조순기 한미영 무명6

녹색꿈헌금

김재환 무명2

	백 혜 숙 신 진 식 장 영 숙 노 순 옥 박 홍 재 권 미 숙 김 금 순 곽 권 희 안 홍 숙 정 영 선 박 혜 경 김 재 흥 김 재 흥 이 범 석 이 범 석 신 진 식	박 성 희 최 경 미 신 영 신 진 정 숙 박 홍 재 박 미 영 김 금 순 윤 수 진 오 현 정 홍 춘 숙 박 혜 경 오 자 영 송 형 운 이 진 영 곽 상 준 윤 성 종	박 성 희 임 정 자 박 정 숙 진 정 숙 백 묘 현 권 미 숙 김 금 순 김 필 순 야 외 송 양 진 김 민 화	방 학

마음으로 읽는 글

알 수 없어요

– 한용운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루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 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 도 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장 로 :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 휘 : 윤주원 안홍숙	**반 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 사십시오. 의심과 불신을 버리고 마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채우고 사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앞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아멘. 의심과 염려를 가득 채우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그동안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부질없는 것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마음을 채우고 살겠습니다.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세상을 내다보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설교 : 이범석 목사 기도 : 김재환 집사

	설교	**기도**	**성경봉독**
다음 주 예배위원	이재훈 전도사 김재흥 목사	공동기도 방문성 장로	권미정 집사 김문주 집사

7	영접위원	박성실 허호범 김훈동 유경순 박경원 박시내
	헌금위원	한상익 장혜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믿음으로 읽는 글

누워서도 열매 맺는 나무처럼, 도란 할머니

지난 장날, 유명 방송사 봉사단 주최로 우리 면에서 경로잔치가 열렸다. 유명 트로트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고, 양·한방 의료진이 무료 검진과 치료를 해준단다. 뿐만 아니라 커플 사진 촬영과 웨딩마치 이벤트에 경품 추첨까지! 별 다를 거 없는 밋밋한 일상을 사는 할머니들에게 와서 신나게 놀아보라며 청량음료 같이 톡 쏘는 유혹을 했다. … 잔뜩 들뜬 할머니들 목소리가 소풍 가는 여학생들처럼 떠들썩하게 마을의 아침을 깨웠다.

그러다가 한 무리의 할머니들을 태운 택시가 마을을 빠져나가고, 마을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마을이 텅 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마당을 정리하고 있는데, 지팡이 소리가 들렸다. 도란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잔치 구경 안 가셨어요?" "이…… 꼬라지로…… 어디……를 간다요……."
끊어질 듯 이어지며 힘겹게 흘러나오는 할머니 목소리. 도란 할머니 목소리를 들을라치면 나도 모르게 온몸에 힘이 들어간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아들으려고 내 딴에 애를 쓰는 건데, 그럼에도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다. 왼쪽 다리와 팔, 얼굴까지 몸의 반쪽이 오그라들고 불편하시기에 발음 또한 무척 어눌하시기 때문이다. "그래도 가서 신나게 놀다 오시지." 도란 할머니는 대답 대신 입 꼬리를 살짝 올려 웃으시고는 다시 가던 길을 가셨다. 앞으로 푹 고꾸라질 것처럼 휘청거리며 지팡이에 의지한 몸을 힘겹게 옮기셨다.

도란 할머니는 수줍음이 많으신 탓에 아직까지도 나를 어렵게 대하신다. 한참 어린 사람이니 편하게 대하셨으면 하는데 언제나 존대를 하시고 우리 집 마당으로 선뜻 들어오시지도 않는다.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시고, 먼저 말을 거시는 일도 없다. …

놀라운 것은 그와 같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그 누구보다 폭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다. 도란 할머니는 성격이 쾌활하거나 명랑한 것도 아니고, 말주변이 좋으신 것은 더더욱 아니건만 치우치지 않고 여러 사람과 두루두루 잘 지내신다. 성질이 사나운 광덕 할머니와도, 광덕할머니와 대적해서 싸우는 쌍지할머니와도…….

때문에 도란 할머니 집은 우리 마을에서 사랑방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비 오는 날이면 여럿이 모여 지짐도 부쳐 먹고, 할머니네 툇마루에 앉아 작은 꽃밭을 바라보며 우두커니 있기도 하고 말이다. 나 역시도 누구 집에 편하게 들어가는 성격이 아님에도 할머니 집 댓돌 위에 신발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을 보면 은근슬쩍 발길이 간다.

가서 보면 집 안이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다. 불편한 몸으로 어떻게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집을 돌보시는 걸까? 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셔서 하루에 두 시간씩 살림살이를 돌봐주신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원체 타고난 성품이 정갈하신 듯하다.

언젠가 할머니가 빨래를 널고 계시는 모습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는데, 빨래를 만지는 손길부터도 나와 달랐다. 기우뚱거리는 힘든 몸으로도 빨래가 반듯반듯하게 될 때까지 몇 번이나 매만지셨다. 그걸 보며 할머니가 결코 허술하거나 서툰 분이 아님을 느꼈다. 그동안 '몸이 불편하시니까 아무것도 못하실 거야'라고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함부로 생각할 게 아니었다.

… 할머니는 자식을 넷이나 낳아 키우셨다. 자식을 둘 낳아 키우면서도 힘에 겨워 할 때가 많은 나로서는 할머니가 지나온 세월이 까마득하기만 하다. 대체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돌보셨을까? 전해 듣기로는 할아버지가 술을 좋아해서 일은 안 하고 술만 드셨다는데, 그걸 지켜보는 마음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도란 할머니 삶을 거슬러 들여다보다가 문득 지난 태풍에 쓰러진 벚나무가 떠올랐다. 나무는 뿌리가 반쯤 뽑힌 채 누워 있었지만 봄에는 분홍 꽃을 활짝 피워냈고, 꽃이 진 자리에 먹음직스런 버찌까지 매달았다. 정말이지 쓰러져 누워있다고 해서 함부로 볼 게 아니었다.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도란 할머니가 무력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이 세상엔 우리가 함부로 봐서는 안 되는 게 참 많다. 생명은 그 어떤 상황에서든 제 몫을 힘껏(!!!) 살아낸다.

도란 할머니는 올해 나이 여든. 평생 골골하면서도 여든이 되도록 산다며 다들 신기해한다. 그런데 할머니가 불편한 몸을 갖게 된 사연이 기구하다. 막 태어났을 때 딸이라고 실망해서 밖으로 집어 던졌는데, 그 일로 인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신 것이다. 그런 딸을 지켜본 부모 마음은 어땠을지…….

아무튼 힘든 몸으로 어렵게 사셨지만 2남 2녀가 장성해서 할머니를 극진하게 모신다. 거의 주말마다 와서 놀다 가고, 할머니 몸이 불편한 데가 있다고 하면 쏜살같이 달려와 모시고 간다. 어버이날에는 마을 어른들을 다 불러 음식 대접을 할 정도다.

– 정청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중에서